

주간 통일정세

2017-17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4.22	러 블라디보스토크 北총영사 교체...“립청일 총영사 곧 귀임”(연합뉴스)
	4.23	北 김정은, 돼지공장 시찰...“돼지바다 펼쳐졌다”(연합뉴스)
		北 인민무력성, 창군 85돌 기념 연회(연합뉴스) 北, ‘여맹’호 경비행기 증정식 개최(연합뉴스)
	4.25	김정은, 창군절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에 꽃바구니 보내(연합뉴스)
		김정은, 삼지연 개발 지원 근로자에 감사(연합뉴스)
	4.26	北외무성 대변인 “한반도 전쟁 터지면 美·안보리 책임”(연합뉴스)
		北매체 “사회주의 지키고자 특단의 선택 마다치 않겠다”(연합뉴스) 北매체, 여맹거리 건물들 미사일에 비유...“선군총대의 숲”(연합뉴스)
4.27	北, 조선소년단 대회 6월 개최...“김정은의 조직으로 강화”(연합뉴스)	
경제	4.22	AP “北 주유소 연료 공급 제한...휘발유값도 급등”(연합뉴스)
	4.24	“중국국제항공, 베이징-평양 노선 다음달 5일 운항 재개”(연합뉴스)
	4.27	“北, 차 한 대당 20ℓ로 주유 제한...휴업 주유소 속출”(연합뉴스)
사회 문화	4.23	김일성 생일기념 모형항공 경기 개최(연합뉴스)
	4.24	“北청년들, 공안기관 단속에도 머리·패션 한류 스타일”(연합뉴스)
	4.25	“北주민, 탈북민 비난 강연서 한국 정착지원제도 알게 돼”(연합뉴스)
	4.26	“北, 작년 국제특허 출원 5건에 그쳐”(연합뉴스)
		“北 작년 평양 인구 287만명...50만명 이상 도시 3개”(연합뉴스) 北, 청진 지역에 대서양연어 양식장 건설(연합뉴스)
	4.27	김영남 등 北고위간부, 여맹거리 입주민 방문(연합뉴스)
		“北 시장에 소고기 등장...택시 영업도 확대”(연합뉴스)
美연구소 “北고위층, 김정은에 대한 불만 커져”(연합뉴스)		
北매체 “고속철 건설 위한 설계도면 완성” 주장(연합뉴스) “북한 평성서 태양광 전지판 단 자동차 목격”(연합뉴스)		
외교 국방	4.22	北매체 “트럼프가 적대정책 안버리면 북미대화 관심없어”(연합뉴스)
		北 “열병식 등장한 무장장비, 美정수리에 박은 대검”(연합뉴스)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트레일러 등 움직임 포착”(연합뉴스)
	4.23	北, 이번엔 청년단체 내세워 결사항전 ‘말폭탄’(연합뉴스)

	北, 日 '교육적어' 부활 방침에 반발(연합뉴스)
	"北 양자암호장치 개발...美 미사일 해킹 피할 수 있다"(연합뉴스)
4.24	北, 다가오는 美 핵항모에 연일 "수장하겠다" 위협(연합뉴스)
	北노동자단체도 대미항전 담화...“핵전쟁 도발 짓몽겔 것”(연합뉴스)
	北인민무력상 “미국 칠 초정밀화·지능화된 타격수단 실전배치”(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통화후 北에 경고장 날린 中...긴박한 한반도(연합뉴스)
	러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北 도발행동 단호히 비난”(연합뉴스)
	호주 “무기보다 주민부터 챙겨라”...北 핵공격 위협 반박(연합뉴스)
	뉴질랜드 총리 “北 위협적이나 뉴질랜드 목표물 삼을 능력없어”(연합뉴스)
	해일리 美유엔대사, 北핵실험시 군사타격 시사...“대통령 개입”(연합뉴스)
4.25	美백악관 '北 억류 미국인 석방 촉구...“집으로 돌아와야”(연합뉴스)
	北, 펜스 방한 거론하며 “美, 위험한 도박 준비”(연합뉴스)
	北, 창군 85주년에 “美, 정치·군사 항복 중 선택할 숙명”(연합뉴스)
	北외무성, 트럼프 대북정책 비난...“압살에 결판 볼 것”(연합뉴스)
	北, 근로단체 내세워 연일 대미비난 담화...이번엔 농민단체(연합뉴스)
	北 인질외교에 질린 말레이 “평양선 국제경기 안 한다”(연합뉴스)
	北, 창군절 역대 최대 화력훈련...재래식무기로 시위(연합뉴스)
4.26	北여맹도 대미비난 가세...“여성의 이름으로 美 준열히 단죄”(연합뉴스)
	北, 日의원 야스쿠니 참배에 “추악한 반인륜 범죄”(연합뉴스)
	말레이 “아시안컵 예선전 평양서 못 치른다”...입장 재확인(연합뉴스)
	北 “사상 최대 합동타격시위”...美항모·수도권 겨냥(연합뉴스)
	北, 사상 최대 타격시위에 재래식 무기 총동원(연합뉴스)
4.27	美 “경제제재·외교수단으로 대북 압박...협상 문 열어둬”(연합뉴스)
	北, 미사일로 美항모·백악관 타격 새 가상영상 공개(연합뉴스)
	주유엔 北대표부 “美가 대결 바란다면 끝까지 해볼 것”(연합뉴스)
	매케인 美상원 군사위원장 “대북 군사옵션 배제 말아야”(연합뉴스)
	北외무상, 아세안에 “핵 재앙 막기 위해 우릴 지지해달라”(연합뉴스)
4.28	美 국무부 “北 비핵화 신호 보여야 협상 가능, 대가는 없다”(연합뉴스)
	北매체 “美, 오바마 실패를 전략무기로 만회 시도” 주장(연합뉴스)
	北외무성 부상, 알제리 방문해 “정세변화에도 관계발전하자”(연합뉴스)
	산케이 “北공개 포격훈련 사진 '부자연'...합성 가능성도”(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4.23	태천돼지공장 공개활동	황병서, 서흥찬, 김광혁, 손철주	
4.26	인민군 군중 합동 타격시위 참관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4. 23.

■ 北 김정은, 돼지공장 시찰…“돼지바다 펼쳐졌다”(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군 공군부대의 돼지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4월 22일 북한군 항공 및 반항공군 태천돼지공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냉동고에 통돼지들이 가득 차 있는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면서 "비행사들에게 선도가 좋은 돼지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 김정은은 "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애국심을 발휘해 설비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는데 우리것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식대로 얼마든지 잘살 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면서 "인민군대가 당의 국산화 방침 관철에서도 앞장섰다"고 발언함.

2017. 4. 25.

■ 김정은, 창군절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에 꽃바구니 보내(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고위 간부들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이름이 적힌 꽃바구니가 김일성·김정일 입상에 진정(進呈)됐다고 보도함.
-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 김정은, 삼지연 개발 지원 근로자에 감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郡) 개발을 지원한 철도성·대외전람총국 삼지연창작사·체신성·내각사무국 등의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4. 22.

■ 러 블라디보스토크 北총영사 교체…“림청일 총영사 곧 귀임”(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짐.
- 현지 외교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지난 2013년부터 재직한 림청일 총영사가 곧 귀국하고 신임 총영사가 부임한다"고 제보함.
- 림 총영사는 전날 블라디미르 미클루셴스키 연해주 주지사를 찾아 이임 인사를 했으며, 북한으로 돌아가서도 러시아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며 "연해주와의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함.

다. 공식행사

2017. 4. 23.

■ 北 인민무력성, 창건 85돌 기념 연회(연합뉴스)

- 북한군 창건 85돌을 앞두고 인민무력성에서 23일 북한 주재 무관단 관계자들과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을 초대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박영식 인민무력상(육군대장), 북한군 장군인 럽철성과 오금철, 군관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北, '여맹'호 경비행기 증정식 개최(연합뉴스)

- 북한군 창건 85돌을 앞두고 '여맹'호 경비행기 증정식이 23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장춘실 여성동맹 중앙위원장이 증정사를 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여맹호 경비행기 증정서는 북한군 총참모부 일꾼들에게 전달됨.

2017. 4. 27.

■ 北, 조선소년단 대회 6월 개최…“김정은의 조직으로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어린이 단체인 조선소년단의 제8차 대회를 6월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청년동맹)는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27일 발표하였다"며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주체106(2017)년 6월 초에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함.
- 청년동맹은 이번 대회가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소년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소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4. 26.

■ 北외무성 대변인 “한반도 전쟁 터지면 美 안보리 책임”(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중략)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과 특수작전 수단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지게 될 것이며, 미국에 추종해온 유엔 안보리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괴이한 것은 지난 2개월간 남조선에 온갖 핵전략 자산을 끌어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침략적인 합동 군사연습을 벌려(벌여)놓고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간 장본인인 미국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는 광대극을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의 핵 보유를 초래한 미국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이미 수차례 걸쳐 안보리에 제소했지만, 이사회는 매번 외면하고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매체 “사회주의 지키고자 특단의 선택 마다치 않겠다”(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우리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지킬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라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북·미 대결은 "군사적 대결이기에 앞서 사상과 이념의 대결"이라며,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도 '퀘변'이라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최후 발악은 조선의 사회주의가 전진하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며 "우리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北매체, 여명거리 건물들 미사일에 비유…“선군총대의 숲”(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 '메아리'는 26일 '주체적 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여명거리 건축물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명거리의 초고층 건물군(群)을 "최첨단 무장장비들로 이루어진 선군 총대의 숲을 보는 것만" 같다고 표현함.
- 이 매체는 여명거리의 최고층 건물인 70층 아파트가 '거세찬 폭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으로 솟구쳐 오르는 다계단 운반로켓'을 연상시킨다며 장거리 미사일에 비유함.
- 40층, 55층 아파트는 '제국주의 아성을 송두리채 죽탕쳐버릴 원수 격멸의 의지로 만장약되고(가득 차고) 금시라도 대지를 박차고 치솟아 오를 듯한 중장거리 탄도로켓'을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7. 4. 22.

■ AP “北 주유소 연료 공급 제한…휘발유값도 급등”(연합뉴스)

- 북한 주유소들이 서비스를 제한하기 시작하고 연료 부족 우려로 문을 닫는 주유소도 속출해 평양 차량 운전자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AP는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전날 평양의 한 주유소 밖에 걸린 간판에 기름 판매가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차량으로 제한된다고 쓰여 있었다고 보도했으며, 이 조치는 지난 19일 시행에 들어갔음.
- 아직 영업하는 주유소에는 평소보다 긴 줄이 늘어섰으며, 기름값도 급등해 한 주유소에서는 원래 kg당 70~80 센트(약 795~909원)였던 휘발유 가격이 kg당 1.25 달러(약 1천420원)로 상승함.

2017. 4. 27.

■ “北, 차 한 대당 20ℓ로 주유 제한…휴업 주유소 속출”(연합뉴스)

- 로이터 통신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전문여행사 영 파이 오니아 투어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보름 동안 작업을 위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 한 대당 (유류) 20ℓ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고 RFA가 보도함.
-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도시 지역에 있는 일부 국영 주유소의 경우 유류 부족으로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있음.
- 이외에 나선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역에서도 휘발유값이 급등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4. 24.

■ “중국국제항공, 베이징-평양 노선 다음달 5일 운항 재개”(연합뉴스)

-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베이징(北京)-평양 노선의 운항을 다음달 5일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중국국제항공이 운항을 재개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 중국국제항공은 2008년 베이징-평양 노선을 개설해 최근에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왕복 운항했으며, 운항 재개 이후에는 요일을 변경해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왕복 운항할 계획임.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4. 27.

■ 김영남 등 北고위간부, 여명거리 입주민 방문(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간부들이 평양 여명거리 입주민들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함.
- 여명거리 입주 가정 방문 행사에는 김영남 외에도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김기남·최태복·리수용·김평해·리만건·오수용·곽범기·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내각 부총리 등 당과 국가기구의 고위간부들이 동원됨.
- 고위간부들은 여명거리 입주 주민들에게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라"고 당부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나. 시장관련

2017. 4. 27.

■ “北 시장에 소고기 등장…택시 영업도 확대”(연합뉴스)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 실린 '2016년 북한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해 시장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목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힘.
- 최근 시장에서 관찰되는 변화와 관련해 2012년께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된 개인 약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택시영업이 활발해지면서 평양에만 1천500대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산이 대부분이지만 소고기가 시장에 등장한 것 역시 최근의 북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변화 양상 중 하나임.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4. 23.

- **김일성 생일기념 모형항공 경기 개최(연합뉴스)**

- 김일성 생일기념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모형항공(자유비행) 경기가 얼마 전 사리원시 미곡리에서 열렸다고 북한의 인터넷 매체 '메아리'가 23일 소개함.

2017. 4. 24.

- **“北청년들, 공안기관 단속에도 머리·패션 한류 스타일”(연합뉴스)**

- 북한 공안당국의 '비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머리 모양이나 패션을 남한 스타일로 바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24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고리타분한 조선(북한) 머리보다 자본주의 스타일의 머리 모양을 즐기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청진과 회령 등의 도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제보함.
- 북한이 이런 행위를 '비사회주의' 문화로 규정하고 공안 당국을 내세워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20~30대의 '장마당' 세대들은 모자를 쓰거나 수건 등을 이용해 머리를 가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주장함.

2017. 4. 25.

- **“北주민, 탈북민 비난 강연서 한국 정착지원제도 알게 돼”(연합뉴스)**

- 북한 공안요원들이 최근 주민의 탈북을 막고자 한국 내 탈북민들의 삶을 비난하며 벌이는 강연이 되레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대북전문매체인 뉴포커스가 25일 보도함.
- 북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최근 북한 공안요원들이 주민을 상대로 남한 내 탈북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담은 내용의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보위원의 선전을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다"고 제보함.
- 소식통은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주민이 남한 정부의 탈북민 지원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남한은) 탈북주민에게 집도 주고 생활 유지비도 주는데, 북한은 백성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함.

2017. 4. 26.

■ “北, 작년 국제특허 출원 5건에 그쳐”(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국제특허는 5건에 불과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는 RFA에 북한이 작년 3월에 2건, 5월에 1건, 12월에 2건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5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힘.
- 북한이 지난해 출원한 특허는 사이안화 나트륨 생산 공정, 전력계통의 가상 정류회로, 암반 발파법 등인 것으로 알려짐.

■ “北 작년 평양 인구 287만명…50만명 이상 도시 3개”(연합뉴스)

- 지난해 평양 인구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28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의 민간기구 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미국의 민간기구 '데모그래피아'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2016년 평양 인구는 287만 명으로 추산된다"면서 "2015년 286만 명에서 소폭 증가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평양은 인구 규모에서 (세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천34개 가운데 165위를 기록했다"며 "청진이 인구 63만 명으로 821위, 함흥이 54만5천 명으로 956위를 기록해 북한에서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모두) 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함.

■ 北, 청진 지역에 대서양연어 양식장 건설(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 지역에 대규모 대서양연어 양식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함경북도 청진 지구에 대서양연어 바다양어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며 "만도가 깊고 수질, 수심, 물흐름, 연평균 물 온도가 적합한 청진시 수역을 이용한다"고 설명함.
- 또한 함경북도의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건설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며 내각 수산성에서도 연어 양식장 건설을 밀어주고 있다고 보도함.

2017. 4. 27.

■ **美연구소 “北고위층, 김정은에 대한 불만 커져”(연합뉴스)**

- 미국 랜드연구소는 27일(현지시간) 펴낸 '북한 엘리트의 통일 대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민군 장성과 의사 등 엘리트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이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과 우려 등을 정리함.
- 보고서 저자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많은 탈북자들이 북 고위층 중 상당수가 김정은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김정은의 숙청이나 잔학행위가 고위층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동시에 그의 리더십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는 또 "북한 고위층 다수가 기업가, 자본주의자가 됐다"며 "이들은 중국과 같은 경제 체계를 원할 테고, 이는 중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고 설명함.

■ **北매체 “고속철 건설 위한 설계도면 완성” 주장(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평양시 안의 종합대학들 수백 건의 과학기술 성과 이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철도종합대학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각종 '설계도면'을 최근 만들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대학에서는 조선(북한)식의 고속철도 설계기준, 총계획 설계, 건설 공사 기술 과제서들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부문별, 공정별, 대상별 설계도면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고 언급함.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 시내를 운행할 새 지하철동차(지하철) 도안이 최근 공개됐다고 27일 보도함.

■ **“북한 평성서 태양광 전지판 단 자동차 목격”(연합뉴스)**

- 평양 인근인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 최근 태양광 전지판을 달고 운행하는 자동차가 목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가 27일 보도함.
- NK뉴스는 이번 달에 평성의 과학단지 주변에서 태양광 전지판을 지붕에 부착한 자동차를 두 대 이상 포착했으며, 이 중 한 대에는 중국 업체인 장화자동차(JAC) 로고가 있었다고 보도함.
-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의 여행 가이드인 로완 비어드도 "태양광 자동차들을 평성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 NK뉴스에 제보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4. 22.

■ 北매체 “트럼프가 적대정책 안버리면 북미대화 관심없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지난 시기처럼 탁상공론으로만 끝나는 대화, 반(反)공화국 압살에 도용되는 대화는 백번, 천 번 해도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도 미국이 파기했다며 "조미(북미) 합의들의 정신을 깨끗이 말살해 버린 장본인, 정말로 신의 없는 불량배 국가, 진짜 협잡꾼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제재가 '적대 행위' 단계를 벗어나 '전면전쟁'에 이르고 있다며 "적대세력의 침략에 정의의 성전으로 대답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권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이 의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열병식 등장한 무장장비, 美정수리에 박은 대검”(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각종 무기를 동원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정수리에 시퍼런 날창(대검)을 박은 것"이라고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메아리'가 22일 주장함.
- 이 매체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문답 형식의 글에서 "대규모 열병식장에서 보여준 우리 혁명무력의 다종화되고 현대화된 최첨단 무장 장비들이야말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해 보려고 모지름(안간힘) 쓰고 있는 미국의 정수리에 시퍼런 날창을 박은 것"이라고 표현함.
- 이 매체는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들의 핵전략자산들을 계속 우리 영해 가까이로 들이민다면 그야말로 죽음의 함정으로 스스로 찾아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주장함.

2017. 4. 23.

■ 北, 이번엔 청년단체 내세워 결사항전 ‘말폭탄’(연합뉴스)

-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23일 대변인 성명에서 "미제는 불패의 핵 무력에 핵폭탄으로 만장약된(가득 채운) 500만 청년 대군이 분노를 터치면 지구가 통채로(통째로) 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성명은 미국이 한반도를 향해 항공모함을 비롯한 핵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다며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리고 반미대결전, 조국통일대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오고야 말 영웅적 조선 (북한) 청년의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섬멸 의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발표함.
- 이어 "미국의 수치스러운 종말의 마지막 페이지(페이지)를 우리 세대가 보기 좋게 써주겠다는 것이 선군시대 조선 청년들의 선언"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미국 탱크(탱크)의 무한궤도소리에 놀라 산지사방 흩어지고 미국 미사일(미사일)들에 얻어맞고도 보복의 포탄 한 발 날리지 못하는 약소국의 청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펜스 “北, 트럼프와 미군의 힘 시험말라…모든 옵션 테이블에”(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은 우리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발언함.
- 펜스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대해 "내가 한국에 오는 와중에도 (북한은) 실패했지만,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함.
- 펜스 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접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끝내고, 자국민에 대한 억압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함.

2017. 4. 24.

■ 北, 다가오는 美 핵항모에 연일 “수장하겠다” 위협(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인민군 군관 류철벽' 명의로 '거대한 파찰더미가 되어 수장되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함.
- 논평은 칼빈순호와 함께 한때 한반도 주변으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됐던 니미츠호,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한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핵 항공모함 3척을 언급하며 "북침 전쟁의 시각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도 이날 "(6·25 전쟁 당시) 미제 침략군의 중순양함 볼티모어호를 통쾌히 바닷속 깊이 수장해버려 미국 해군 역사에 수치스러운 한 페이지를 써준 우리 군대"라며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오면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노동자단체도 대미항전 담화…“핵전쟁 도발 짓뭇갈 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 24일 대변인 담화에서 "백두산 대국의 영웅적 노동계급은 정의의 핵보검,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횡포 무도한 북침 핵전쟁 도발과 제재 압박 책동을 걸음마다 무자비하게 짓뭇개버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직총 대변인은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을 제목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전개를 거론하며 "미국이 날이 갈수록 날강도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북침전쟁 광기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감히 공화국의 문전에서 불장난질을 해대는 하룻강아지들을 모조리 쇠 장대로 꿰어 펄펄 끓는 전기로에 처넣을 것"이라며 "핵 항공모함이든, 핵 전략 폭격기이든 침략의 살인 장비들을 편포(육포의 일종)짝으로 만들어 파철무지 속에 처박아버릴 것"이라고 주장함.

■ 北인민무력상 “미국 칠 초정밀화-지능화된 타격수단 실전배치”(연합뉴스)

-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은 24일 오후 조선중앙TV가 녹화 방송한 북한군 창건 85주년(4월 25일)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이미 '실전배치(배치)'됐다고 발언함.
- 박영식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조준경 안에 잡아넣은 우리 핵공격 수단들은 지금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있다"고 발언함.
- 그는 현재 한반도에서 '최악의 핵전쟁 발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적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천하무도한 군사적 모험의 길로 나오려고 한다면...(중략)...강력한 핵 선제타격으로 침략의 아성을 지구 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발언함.

2017. 4. 25.

■ 헤일리 미유엔대사, 北핵실험시 군사타격 시사…“대통령 개입”(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6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헤일리 대사는 24일(현지시간) NBC, CBS 등 미국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헤일리 대사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개입해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함.

■ 미백악관 '北 억류 미국인' 석방 촉구…“집으로 돌아와야”(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58) 씨를 억류한 것과 관련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촉구함.
-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는 억류 중인 미국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발언함.
-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미국인은 보호받아야 하며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고 발언함.

■ 北, 펜스 방한 거론하며 “美, 위험한 도박 준비”(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 '메아리'는 25일 '펜스는 제2의 덜레스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펜스의 남조선 행각(방문)에 대해 여론은 1950년 6월 17일 조선전쟁(6·25전쟁)을 앞두고 남조선에 날아와 38선을 시찰하면서 북침전쟁 상태를 최종 검열하였던 덜레스의 행각을 방불케 한다고 일치하게 평하고 있다"고 주장함.
- 매체는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대해 "제2의 조선전쟁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알려진 펜스가 남조선에 날아들었다"고 설명함.
- 또한 "펜스는 67년 전의 덜레스와 마찬가지로 관문점 일대를 돌아치며 지금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주장함.

■ 北, 창군 85주년에 “美, 정치·군사 항복 중 선택할 숙명”(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인민군 창건일 85주년을 맞아 1면 사설에

서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우리에게 대한 핵 공갈과 침략 책동을 일삼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됐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에 "정치적·군사적 항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숙명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계속 무모한 선제타격 망동에 미쳐 날뛰다면 백두산 혁명장군은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도 없이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가장 처절한 징벌의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외무성, 트럼프 대북정책 비난…“압살에 결판 볼 것”(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사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우리를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이상 우리는 정의의 장검을 뽑아들고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만능의 보검인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발언함.
- 외무성 대변인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천백 배의 보복 의지를 바로 볼 대신 초보적인 현실 감각도 없이 고안해 낸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허황하고 무모하기 그지 없다"고 발언함.

■ 北, 근로단체 내세워 연일 대미비난 담화…이번엔 농민단체(연합뉴스)

- 북한의 농민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25일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원수들이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땅을 차고 달려나가 침략자, 도발자들을 모조리 죽탕쳐 버리고 반미 대결전, 조국통일 대전의 최후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농근맹 대변인은 "농업근로자들은 일단 명령만 내리면 사랑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 귀중한 나의 땅을 지켜 철천지 원수 침략의 무리에게 파멸적 징벌을 안길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우리의 정든 보금자리 사회주의 문화농촌들에 원수들의 폭탄 한 발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중략)...전쟁 미치광이들인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적 패당을 잡초처럼 쓸어 베어 두엄더미에 처넣을 것"이라고 주장함.

2017. 4. 26.

■ **北여맹도 대미비난 가세…“여성의 이름으로 美 준열히 단죄”(연합뉴스)**

- 북한의 4대 근로단체 가운데 하나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이 26일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전체 여성들의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주장함.
- 여맹은 이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고 발광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과 제 죽을지 모르고 설쳐대는 괴뢰 호전광들을 전체 조선 여성들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하며 천백 배의 보복 의지를 선언한다"고 발언함.
- 여맹 대변인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행복한 생활을 파괴하려고 날뛰는 미제승냥이들과 괴뢰 역적 무리들은 이 나라 여인들의 사무치는 원한과 징벌의 불세례가 얼마나 무자비한가를 몸서리치게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4. 27.

■ **美 “경제제재·외교수단으로 대북 압박…협상 문 열어둬”(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함.
-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 브리핑을 마치고 낸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함.
- 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주장함.

■ **北, 미사일로 美항모·백악관 타격 새 가상영상 공개(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용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 26일 '멸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는 제목으로 약 2분 28초 분량의 가상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한미훈련에 투입된 장갑차·수송기·헬기 사진과 영상이 잇달아 등장하며 그 위에 가상의 조준 표시가 삽입됨.
- 또 지난 2월 북한의 '북극성 2형' 미사일 시험발사 영상과 미사일 4발이 태평양

상공을 가로질러 미국 백악관을 타격하는 가상의 장면을 순차로 내보내며 "최후 멸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발언함.

■ **주유엔 北대표부 “美가 대결 바란다면 끝까지 해볼 것”(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이 대결을 바란다면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함.
- 중앙TV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는 26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를 힘으로 어찌 보겠다고 핵 항공모함 타격단들을 줄줄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끌어들이고 있지만, 미국의 위협과 공갈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 북한 대표부는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우리식의 강경 대응은 그 즉시에 따라서게 될 것"이라며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힘으로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매케인 美상원 군사위원장 “대북 군사옵션 배제 말아야”(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 임박했다고 보진 않지만 이를 테이블에서 내려놓아선 안 된다"고 발언함.
- 매케인 위원장은 다만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반드시 마지막 옵션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그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시점에 대해선 "북한이 미국의 서부 해안을 강타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라고 주장함.

2017. 4. 28.

■ **美 국무부 “北 비핵화 신호 보여야 협상 가능, 대가는 없다”(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힘.
-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민주주의방어재단(FDD)이 마련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는 역내를 넘어선 국제적인 안보 도전이며 최우선 순위의 해결 과제"라며 "최대의 압박과 국제 공조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발언함.

- 그는 트럼프 정부가 경제·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줬지만,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약속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주장함.

■ **北매체 “美, 오바마 실패를 전략무기로 만회 시도” 주장(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용 선전 매체 '메아리'는 28일 '최선의 압박과 개입'으로 요약되는 트럼프의 대북정책 기조와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핵 전략무기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전략무기'로 만회하려 한다고 주장함.
- 매체는 또 "취임 전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던 트럼프가 남조선 당국을 향해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군사적 힘을 과시하며 주변 나라들을 압박해 그들이 반(反) 공화국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전략무기로는 결코 전략적인내의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며 "우리 공화국은 이번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으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통채로(통제)로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능력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2017. 4. 24.

■ **트럼프·시진핑 통화후 北에 경고장 날린 中…긴박한 한반도(연합뉴스)**

-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25일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측 입장은 어떠한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에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함.
- 경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요구가 있다"고 발언함.
-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며 매우 긴장돼있다"면서 "우리는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함.

다. 북·일 관계

2017. 4. 23.

■ 北, 日 ‘교육칙어’ 부활 방침에 반발(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부활시키려는 방침에 반발함.
- 북한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 반동들은 신성한 교육을 죄악으로 얼룩진 군국주의 역사와 해외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새 세대들을 무지막지한 야수로, 극단한 정신적 기형아, 죄의식을 모르는 철면피한들로 만드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함.
- 담화는 "일본 반동들은 아직까지도 저들의 피비린내 나는 침략의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는 고사하고, 미화·분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 세대들에게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를 심어주고 해외침략 야망을 주입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7. 4. 26.

■ 北, 日의원 야스쿠니 참배에 “추악한 반인륜 범죄”(연합뉴스)

- 북한의 일제 강점기 강제연행 피해자 단체가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집단 참배한 데 대해 "추악한 반(反)인륜 범죄"라고 비난함.
- 북한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유가족 협회'는 26일 대변인 담화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살인마들을 추어올리고 조선에 대한 재침 야욕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일본 반동 정객들의 군국주의 광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협회는 "이것은 정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며 과거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추악한 반인륜 범죄"라고 주장함.

라. 북·러 관계

2017. 4. 24.

■ 러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北 도발행동 단호히 비난”(연합뉴스)

-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국 국장은 24일(현지시간) 현지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도발 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과시적 행동을 단호히 비난한다"고 발언함.

- 울리아노프 국장은 "이는(북한의 행동은)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며 단호한 비난을 받을만하다"고 주장함.
- 그는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관련국 모두에 협상으로 복귀할 것과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 조치를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서방도 북한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4. 24.

■ 호주 “무기보다 주민부터 챙겨라”…北 핵공격 위협 반박(연합뉴스)

-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23일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보다는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24일 보도함.
- 비숍 장관은 또 북한의 이번 위협을 볼 때 그들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함.
-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비숍 외교장관이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노선을 맹목적이고 열성적으로 따르기 전에 숙고해야 한다며 핵 공격 위협을 함.

■ 뉴질랜드 총리 “北 위협적이거나 뉴질랜드 목표물 삼을 능력없어”(연합뉴스)

-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뉴질랜드를 목표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가 24일 발언함.
- 그는 북한의 핵 능력 등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이 뉴질랜드·호주를 목표물로 삼는 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함.
- 그는 "북한은 많은 나라에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이 과연 그런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함.

2017. 4. 25.

■ 北 인질외교에 질린 말레이 “평양선 국제경기 안 한다”(연합뉴스)

- 25일 선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미딘 모드 아민 말레이시아축구연맹(FAM) 사무국장은 전날 FAM 연례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FAM은 평양에서 경기를 치르길 원치 않는다"고 발언함.

- 말레이시아는 애초 지난달 28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 대표팀과 아시안컵 예선 1차전 원정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되고, 김정남의 시신과 북한인 용의자들의 신병 인도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자 FAM은 제3국으로 경기장소를 옮길 것을 요구함.
- 하미딘 사무국장은 "북한축구연맹(PRKFA)은 경기를 북한에서 치르길 원한다는 서한을 AFC에 보내고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FAM은 북한에서 경기를 치르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함.

2017. 4. 26.

■ 말레이 “아시안컵 예선전 평양서 못 치른다”…입장 재확인(연합뉴스)

-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최종예선전을 평양에서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26일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청소년스포츠부와 외무부,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전날 말레이시아축구연맹(FAM)과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함.
- 말레이시아축구연맹은 회의 직후 배포한 성명을 통해 "청소년스포츠부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선 경기가 평양이 아닌 중립적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고 결정됐다"고 밝힘.

2017. 4. 27.

■ 北외무상, 아세안에 “핵 재앙 막기 위해 우릴 지지해달라”(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과의 대립과 관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핵 재앙'의 발생을 막기 위해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AFP 통신이 27일 보도함.
- 이 보도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3일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통해 "미국의 행동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 직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함.
- 리 외무상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아세안이 공정한 자세로 아세안 회의에서 미국과 남한의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2017. 4. 28.

■ **北외무성 부상, 알제리 방문해 “정세변화에도 관계발전하자”(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과 알제리 외교·국제협력부 사이의 '제1차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24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열렸다고 27일 보도함.
- 신흥철 외무성 부상은 '두 나라가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쌍무(양자)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며, 과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알제리 정부와 국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 것을 언급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라베히 사무총장은 "알제리 정부와 인민은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북한)의 통일 노선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4. 22.

■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트레일러 등 움직임 포착”(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갭도 입구에서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되는 등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함.
- 38노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에서 폐기물 더미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채굴용 수레 최소 5대가 있고, 부속 건물 인근에 소형 장비 트레일러 추정 물체 1대가 있는 것이 확인됨.
- 38노스는 "포착된 활동이 다가오는 핵실험을 앞둔 '전략적인 일시정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와 상관없이 위성사진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평양에서 지시를 받으면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함.

2017. 4. 23.

■ **“北 양자암호장치 개발…美 미사일 해킹 피할 수 있다”(연합뉴스)**

-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노스코리아테크'를 운영하는 북한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는 "평양이 양자암호화장치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외국 도청 시도자들의 눈과 귀를 넘어 교신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함.

- 양자암호화장치(quantum encryption device)란 양자역학을 암호화 장비에 응용한 기술로, 교신 쌍방에게만 약속된 암호를 제3자가 해킹하려 하면 그 시도 자체를 파악해 낼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음.
- 윌리엄스는 "양자암호화장치는 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 내부의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려는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2017. 4. 25.

■ 北, 창군절 역대 최대 화력훈련…재래식무기로 시위(연합뉴스)

- 북한이 25일 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을 맞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을 진행함.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화력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북한군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아래 장사정포 등 300~400문을 투입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2017. 4. 26.

■ 北 “사상 최대 합동타격시위”…美항모·수도권 겨냥(연합뉴스)

- 북한이 창군 85주년이었던 지난 2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건군 사상 최대 규모의 군중 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26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강원도 원산비행장에 도착한 김정은은 박정천 포병국장(육군 상장)의 영접보고를 받은 뒤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타고 북한 해군, 항공·반항공군, 전선 최정에 포병 무력을 사열함.
- 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호이-25' 폭격기와 '미그 23' 전투기, 여러 척의 잠수함 등 재래식 무기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됨.

■ 北, 사상 최대 타격시위에 재래식 무기 총동원(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을 경축하는 조선인민군 군중 합동 타격시위가 건군 사상 최대 규모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함.
- 북한이 밝힌 화력훈련 내용에 따르면 '수호이 25' 폭격기와 '미그 23' 전투기 등의 공군 무력과 여러 척의 잠수함이 협공 작전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가상한 무인도를

-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이 밝힌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화력훈련은 2015년 1월 공군과 잠수함 부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군중 타격훈련과 2016년 3월 이뤄진 장거리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합친 것으로 추정됨.

2017. 4. 28.

■ 산케이 “北공개 포격훈련 사진 ‘부자연’…합성 가능성도”(연합뉴스)

- 북한이 창군 85주년이었던 지난 25일 건군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타격시위 모습이라며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함.
- 신문은 이날 '북한 포격훈련은 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의 군사 소식통들을 인용, 해당 사진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보도함.
- 군사 소식통들은 특히 "자주포의 배치 간격도 부자연스럽고 전후 3열로 늘어선 자주포가 거의 동시에 포탄을 쏘는 일은 보통은 하지 않는다"며 "우선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25	유일호 "미국과의 무역 문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 부산항 입항
	4.26		미국방부 "사드 배치, 北미사일 방어 핵심조치...조속 완료" 美상무 "한미FTA 개정 검토...반도체·조선도 추가 무역조치"
	4.27	한미일, 北 6차 핵실험시 북한 어업권 거래 차단 추진	
	4.27	김관진·美맥마스터 통화..."北위협 맞서 사드배치 원활 진행"(종합)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4.22		中관영매체 "美韓군대 38선 넘어 침략 땀 즉시 군사개입"
	4.24	통일부 "中, 북핵위협 해결 위해 최대한 北 압박중"	
	4.26		中외교부장 "北핵활동 중지, 韓美군사훈련 중단" 촉구(종합) 中, 성주골프장 사드장비 배치에 "韓美 철거하라" 강력 반발(종합2보)
	4.27		中환구시보 "중요한 순간에 사드가 중국 뒤통수 됐다"

			中 국방부 "신형무기장비로 한국 사드에 대응훈련할 것"(종합2보)
			주미 中대사 "韓美 사드배치, 상호신뢰 파괴...中안보 위협"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25	한미일 6자수석들 "北추가도발시 감내못할 징벌적 조치 합의"	
			日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주장...韓, 주한日공사불러 엄중항의(종합2보)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4.26		러시아 "사드 한국 배치, 심각한 역내 불안 요소"(종합)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4.24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토대 쌓았다...엄청난 결과 있을 것"(종합)		
	4.25	트럼프, 中·日·獨 정상과 대북 협의...美갈빈순호 한반도 근접(종합)		
	4.26	트럼프 "시진핑을 좋아한다...그도 나를 많이 좋아해"		
	4.27		美에 항모대전 도전장 낸 中...높아지는 동북아 군사대립 '파고'	
	4.28		美상원 군사위원장 "中, 북한에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 받아야"	
			'압박작전' 착수한 美 "中, 북한에	

경제적 영향력 가해야(종합)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4.23	美칼빈슨-日호위함, 서태평양공동훈련...北핵실험 가능성 견제(종합)	
	4.24		아베 "北남치문제, 이번 내각이 해결...美와 협력" 재차 거론
		美트럼프-日아베, 전화 통화...대북 공조방안 협의	
	4.25	트럼프, 中·日·獨 정상과 대북 협의...美칼빈슨호 한반도 근접(종합)	
	4.26	日자위대 전투기, 칼빈슨 함재 전투기와 오키나와서 공동훈련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4.23	미국-러시아 외무 전화회담..."시리아-양자 문제 등 논의"	
	4.25	美 "러시아, 아프간 탈레반에 중화기 상당량 제공 정황"	"러, 시리아내 공군충돌 방지위한 美-러 MOU 효력 재개"
	4.28	미·러, 시리아 사태 놓고 안보리에서 또 설전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4.23	中 인민일보 "일본 야스쿠니 참배는 평화에 대한 모독"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4.22	중·러 외무장관 "한반도 정세 지금이 중요한 시기" 협력 강조	
	4.24	中 대북 경계속 "러시아 접경 100km엔 공격무기 철수"	
	4.27	중국·러시아 군부 공동 대응..."사드 한국 배치 결연히 반대"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4.25	"러일, 영유권 분쟁섬서 '공동경제활동' 현지조사 추진"	
	4.28	푸틴, 방러 아베와 회담..."北 도발 억제 위한 양국 공조 합의"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4. 25.

■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 부산항 입항(연합뉴스)

-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SSGN 727·배수량 1만8천여t)가 25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 미시간호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길이 170.6m, 폭 12.8m, 배수량 1만9천t으로 세계 최대규모임.
- 이 잠수함에는 사거리 2천여km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발이 실려 있으며, 원거리에서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으며 잠수함 단독으로 타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춤.
- 미시간호는 우리 해군과 연합작전 일정은 없으며, 단독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대형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로 속속 집결하고 있음.

■ 유일호 "미국과의 무역 문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연합뉴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매우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25일 밝힘.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문에 미국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미국인과 미국 무역을 위해 많은 것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똑같은 걱정을 했다"고 말함.
-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두 차례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자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견해차만 확인한 상태이며, 이에 유 부총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매우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임.

2017. 4. 26.

■ **미국방부 “사드 배치, 北미사일 방어 핵심조치…조속 완료”(연합뉴스)**

- 주한미군은 이날 새벽 사드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장비들을 전격적으로 성주골프장에 반입했으며,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예상보다 빨리 부지에 들여놓은 것은 작전운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미국 국방부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반입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날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한 입장 자료에서 "우리는 방어적인 무기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미 국방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 안보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자국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한국, 일본의 도시들을 핵무기로 타격하기 위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 입장 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함.

■ **美상무 “한미FTA 개정 검토…반도체·조선도 추가 무역조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무역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밝힘.
-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한 조사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20% 상계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공격적인 무역강제(trade-enforcement) 전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임.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무역정책의 수장인 로스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조선, 알루미늄 산업은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한미일, 北 6차 핵실험시 북한 어업권 거래 차단 추진(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북한의 어업권 거래 금지를 추진할

- 방침인 것으로 파악됨.
-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강도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과 함께 어업권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당일 협의 후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2017. 4. 27.

■ 김관진·맥마스터 통화…“北위협 맞서 사드배치 원활 진행”(연합뉴스)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우리시간)부터 2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확장억제력 강화를 포함,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대면한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며 사드배치 이틀째인 이날 통화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진행됨.

나. 한·중 관계

2017. 4. 22.

■ 中관영매체 “美韓군대 38선 넘어 침략 땐 즉시 군사개입”(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사평(社評)에서 북핵에 관한 마지노선을 '무력에 의한 북한 정권 전복', '인도주의적 재앙을 부르는 경제제재'라고 제시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거듭해서 대북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마지노선'을 제시한것임.
-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중국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생명줄(economic lifeline)이다. 비록 쉬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해결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함.

2017. 4. 24.

■ 통일부 “中, 북핵위협 해결 위해 최대한 北 압박중”(연합뉴스)

- 통일부는 24일 중국 환구시보가 최근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밀타격 시 중국군의 불개입 방침을 보도한 데 대해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한 위협요소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환구시보 보도와 관련,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핵시설 폭격을 인용하겠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함.
- 이 대변인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덧붙임.

2017. 4. 26.

■ 中외교부장 “北핵활동 중지, 韓美군사훈련 중단” 촉구(연합뉴스)

- 왕이 외교부장은 2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끝내야 한다며 이러한 뜻을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함.
- 왕 부장은 "지금 가장 긴박하게 해야 할 일은 한반도 갈등에 얽힌 모든 관계국이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안보와 안정성이 쉽게 깨질 수 있고, 하나의 새로운 갈등이나 사건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다", "모든 당사국에 자제를 촉구하며, 새로운 도발로 이어질 행동이나 말들을 피할 것도 역시 촉구한다"라고 덧붙임.

■ 中, 성주골프장 사드장비 배치에 “韓美 철거하라” 강력 반발(연합뉴스)

- 경샹(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국에 사드 배치가 시작됐는데 중국 측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연합뉴스 기자 질문에 "한국에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고 밝힘.
- 경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과 지역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되며 각국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도 역행한다"고 경고함.
- 그는 "중국 측의 전략 안전 이익에 엄중히 훼손되며 중국 측은 미국과 한국이 지역 균형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국 측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7. 4. 27.

■ 中환구시보 “중요한 순간에 사드가 중국 뒤통수 쳤다”(연합뉴스)

- 주한미군의 전격적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배치에 대해 중국의 관영매체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함.
- 27일 관영 환구시보는 "중요한 순간에 사드가 중국의 배후를 찔렀다"라는 제목의 사평에서 "북한이 창군절을 맞아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에 세계가 주목한 지난 25일 북한은 평온했지만 오히려 한미 당국이 전격적인 사드장비 배치로 중국의 배후를 칼로 찔렀다"고 비난함.
- 이 신문은 한국에서 전격적인 사드장비 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급진적인 행동이라며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 나오는 '암도진창(暗度陳倉·정면을 공격할 것처럼 위장한뒤 후방을 공격하는 행위)'에 비유해 강하게 비난함.

■ 中 국방부 “신형무기장비로 한국 사드에 대응훈련할 것”(연합뉴스)

- 양위쥘(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월레브리핑에서 중국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전격적으로 배치된 것과 관련, 신형무기로 사드 대응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양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 민감하며 중국은 지역의 평화 안정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는 이런 노력과 상반되게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군이 앞으로 실전화된 대응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신형 무기·장비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국가 안전과 지역 안정을 보위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신형 무기 장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주미 中대사 "韓美 사드배치, 상호신뢰 파괴...中안보 위협"(연합뉴스)**

- 27일 중국국제라디오에 따르면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26일 미국 CNN과 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며,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은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있으며 양측 모두 한반도 안정 유지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추이 대사는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정세 완화와 충돌 방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각국의 상호 신뢰를 파괴하고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하며 그는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호히 반대하며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함.

다. 한·일 관계

2017. 4. 25.

■ **한미일 6자수석들 "北추가도발시 감내못할 징벌적 조치 합의"(연합뉴스)**

-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하기로 합의함.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도발)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김 본부장은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대북제재 압박에 있어서 이용해 온 안보리 결의, 독자제재, 국제사회 대북제재 압박 등 3가지 축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함.

■ **日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주장…韓, 주한日공사불러 엄중항의(연합뉴스)**

- 일본이 울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이에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함.
-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취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이에 따라 지난해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우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힘.

라. 한·러 관계

2017. 4. 26.

■ **러시아 “사드 한국 배치, 심각한 역내 불안 요소”(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의 무력적 해결 방안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나섬.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열린 제6회 모스크바국제안보회의(MCIS) 개막 연설에서 "한반도 상황 악화가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비대칭적으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특히 "미국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드의 무리한 한국 배치가 심각한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4. 24.

■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토대 쌓았다…엄청난 결과 있을 것”(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자신이 "잘 통했다"(We had good chemistry)며 최근 중국이 북한에 가한 압박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토대"를 쌓았으며 이것이 미국을 위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자신함.
- 트럼프 대통령은 "그(시 주석)는 많은 석탄 배를 돌려보냈다. 엄청난 이 석탄 배들은 중국이 많은 소득을 얻는 곳에서 온 것이다. 전에 없던 일"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중국)이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 시설도 봤을 것"이라며 "전에는 한번도 없던 일이라고 하더라. (미중 관계에) 훌륭한 토대(great foundation)가 생겼고, 미국을 위해 엄청난 결과(tremendous results)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함.

2017. 4. 25.

■ 트럼프, 中·日·獨 정상과 대북 협의…美칼빈슨호 한반도 근접(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한국시간 25일)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놓고 긴밀히 소통하기로 함.
- 최근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추가 통화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에서 북한의 계속된 호전적 행위를 비난하고 북한 정권의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함.
- 시 주석은 "유관 각국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한반도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는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유관 각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원한다"면서 "양국 정상은 각종 방식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제때 공동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함.

■ **트럼프, "시진핑을 좋아한다…그도 나를 많이 좋아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 "그를 좋아한다. 그도 나를 많이 좋아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보수 매체 기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전함.
-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해 정말 힘이 있다"며 시 주석이 북핵 위협에 따른 긴장 완화를 위해 지원한 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또한, "정말 어렵다. 어젯밤 한 시간 동안 시 주석과 통화했다. '(북한 문제를 도와줘) 고맙지만, 중국은 환율조작국이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것은 협상의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함.
- "끔찍한 충돌 우려에 처한 우리를 도와줬는데 내가 (중국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유보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는 "내 임기가 시작된 이래 중국의 환율조작은 없었다"며 "실제 위안화의 가치는 내려가지 않고 올랐다. 우리는 가치 하락만을 우려한다"고 말함.

2017. 4. 26.

■ **美에 항모대전 도전장 낸 中…높아지는 동북아 군사대립 '파고'**(연합뉴스)

- 중국은 러시아에서 들여와 개조해 2012년 9월에 취역한 첫 항모 라오닝(遼寧)함에 이어 자국 기술로 또 다른 항모 건조에 성공함으로써 2척의 항모를 보유한 해군 강국 대열에 끼게 됐다.
-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항모를 독자 제작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으며, 산둥(山東)함으로 명명될 것으로 보이는 새 항모는 길이 315m, 너비 75m에 최대속도 31노트를 내는 만재배수량 7만급 디젤 추진 항모로 스키점프 방식으로 이륙하는 쥘(殲)-15 함재기 40대 탑재가 가능함.
- 외관상으로는 라오닝함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함재기 탑재 갑판을 넓히는 등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함교에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설비를 갖추고 함재기 이착륙이 훨씬 용이해지는 등 성능면에서 큰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인민일보는 "자체 제작 항모의 완성으로 중국 해군이 원양 작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2017. 4. 27.

■ **美상원 군사위원장 “中, 북한에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 받아야”(연합뉴스)**

- 존 매케인(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미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옳은 일이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위기를 막는 것이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핵과 미사일 도발 위기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압박하며, "우리는 중국이 성숙한 플레이어로서,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북한을 제어하기를 기대한다"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함.
- 이어 매케인 상원의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물자 공급을 차단하지 않으면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제삼자 제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진행자가 지적하자 "즉각 고려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동의를 표하며, "중국이 이해해야 할 광범위한 옵션이 있다"며 "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서울의 수백만 명이 목표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그 결과는 재앙적"이라고 지적함.

2017. 4. 28.

■ **'압박작전' 착수한 美 “中, 북한에 경제적 영향력 가해야”(연합뉴스)**

-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으며, '압박작전(pressure campaign)'으로 대북 기조를 선화한 미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에 초점을 맞춘 압박을 한 차원 강화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솔직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또 "북한을 대화로 부드럽게 밀어 넣고자 북한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게 중국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강조함.
- 토너 대행은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또는 핵무기 개발에 더 가까워지려는 분명한 의도로 판돈을 올리고(uppered the ante)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의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함.

나. 미·일 관계

2017. 4. 23.

■ 美칼빈슨-日호위함, 서태평양공동훈련...北핵실험 가능성 견제(연합뉴스)

- 한반도로 향하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과 일본 호위함들이 23일부터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시작했다고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함.
-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아시가라'와 '사미다레' 등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2척이 태평양의 필리핀 앞바다 부근에서 칼빈슨 전단과 합류해 공동 훈련을 개시했다. 미군측에서는 칼빈슨함과 구축함 등 모두 3대가 훈련에 참여함.
- 훈련은 동중국해 등에서 북상하며 3~5일간 진행되며, 일본 서쪽 동해 상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2017. 4. 24.

■ 아베 “北납치문제, 이번 내각이 해결...美와 협력” 재차 거론(연합뉴스)

-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도(東京都)에서 열린 납치피해자 가족모임에 참석, 미국과 협력해 이번 정권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아베 내각에서 납치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에 어떤 흔들림도 없다"며 "내가 사령탑이 돼 북한이 조기 해결이라는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하겠다"고 말함.
- 아베 총리는 "미국 정권에도 납치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했다"며 "미국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함.
-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해 온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담당상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남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힘.

■ 美트럼프-日아베, 전화 통화...대북 공조방안 협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에 즈음해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 정상과 따로 통화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같은 날 연달아 통화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임.

2017. 4. 25.

■ 트럼프, 中·日·獨 정상과 대북 협의…美칼빈슨호 한반도 근접(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한국시간 25일)을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에 즈음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은 일련의 지역적·세계적 문제들에 대해 상호 우려를 표명했다"고 함.
- 아베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화에서 북한에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요구해 나가자는 데 완전하게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 "말과 행동으로 이를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힘.

2017. 4. 26.

■ 일자위대 전투기, 칼빈슨 함재 전투기와 오키나와서 공동훈련(연합뉴스)

-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부대와 동중국해에서 동해로 북상 중인 미 핵항모 칼빈슨 함재기가 26일 공동훈련을 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은 일본 서남단 오키나와(沖縄)현 동쪽 상공에서 이뤄지는 공동훈련에는 자위대 전투기 2기와 칼빈슨의 함재기인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2기가 동원된다고 설명함.
- 동해로 향하는 칼빈슨 전단은 지난 23일부터 서태평양의 필리핀 앞바다에서 동중국해에 걸친 구간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과 공동훈련을 함.

다. 미·러 관계

2017. 4. 23.

■ 미국-러시아 외무 전화회담…“시리아 양자 문제 등 논의”

- 러시아와 미국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로 시리아 문제 등 국제현안과 양자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우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회의에서 시리아 이дли브주에서의 화학무기 사용과 홈스 인근 알샤이라트 공군기지 내 독극물 저장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시리아로 파견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미국이 반대한 것에 유감을 표시함.
- 라브로프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그러나 OPCW 주도로 해당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벌이는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하자는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이달 4일 시리아 이дли브주의 칸세이칸 지역 주택가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습으로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지역 주민 최소 87명이 사망함.

2017. 4. 25.

■ 러, “시리아내 공군충돌 방지위한 美-러 MOU 효력 재개”

- 러시아가 이달 초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이후 잠정 중단했던 시리아 내 미-러 군사충돌방지 양해각서(MOU) 효력을 재개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알려졌다며,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이날 자국 외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부터 '시리아 영공 군사작전 과정에서의 사고 예방 및 항공기 비행 안전 양해각서'의 효력을 재개했다고 전함.
-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 측과의 조율 시스템 부재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우려해 양해각서 복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8일 0시를 기해 시리아 작전 중 미국과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동해 오던 핫라인을 잠정 폐쇄함.
- 지난 2015년 9월 자국 공군을 투입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며 시리아 내전 사태에 개입한 러시아와 그 1년여 전부터 국제 동맹군과 함께 현지 반군 편에서 대(對)테러 공습 작전을 벌여온 미국은 2015년 10월 양국 간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음.

■ 美 “러시아, 아프간 탈레반에 중화기 상당량 제공 현황”(연합뉴스)

-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언론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러시아가 아프간 내전에 개입해 탈레반에 지난 18개월 동안 기관총, 대공화기 등 상당량의 무기를 공급해온 정황이 짙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함.
- 아프간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존 니컬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탈레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15년째 이어져 온 아프간 내전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함.
- 매티스 장관은 특히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미군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러시아가 탈레반에 무기 공급을 해왔다고 주장해왔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은 전함.

2017. 4. 28.

■ 마.러, 시리아 사태 놓고 안보리에서 또 설전(연합뉴스)

-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시리아 문제 토론회에서 안보리 의장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비호하는 탓에 시리아 내전이 7년째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모든 눈과 모든 압박이 러시아로 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압박만이 시리아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멈출 수 있다"고 말하며 "포위된 지역의 민간인에게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사드 정권에 몇년 동안 호소한 것은 실패였고 이제 초점은 시리아 대통령의 최고 동맹에 놓여야 한다"면서 러시아를 겨냥함.
- 이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막는 시리아 정권을 계속 보호하는 이사국이 어디냐"고 물은 뒤 "러시아는 진정한 평화협상과 진정한 정치적 해결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감.

라. 중·일 관계

2017. 4. 23.

■ 中 인민일보 “일본 야스쿠니 참배는 평화에 대한 모독”(연합뉴스)

-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물봉납하고, 국회의원들이 집단참배한 데 대해 "전범을 숭배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난함.
- 신문은 23일 사설에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을 합사한 일본의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전쟁의 상징이라면서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전후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기초한 평화조약과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최근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이 내각에 제출한 일본군 중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문서 19건, 182점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자료만 보서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마. 중·러 관계

2017. 4. 22.

■ 중·러 외무장관 “한반도 정세 지금이 중요한 시기” 협력 강조(연합뉴스)

- 22일 타지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 시리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세를 관리·통제하고, 모험적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고 하며, 또 양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함.

2017. 4. 23.

■ 中 인민일보 “일본 야스쿠니 참배는 평화에 대한 모독”(연합뉴스)

-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물봉납하고, 국회의원들이 집단참배한 데 대해 "전범을 숭배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난함.
- 신문은 23일 사설에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을 합사한 일본의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전쟁의 상징이라면서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전후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기초한 평화조약과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최근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이 내각에 제출한 일본군 중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문서 19건, 182점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자료만 봐서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2017. 4. 24.

■ 中 대북 경계속 “러시아 접경 100km엔 공격무기 철수”(연합뉴스)

- 중국 관영 인민망(人民網)은 24일 중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4개국과의 접경지대에 공격성 무기장비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24일은 이들 5개국이 공동으로 '변경지대 상호 군축협정'에 서명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소속의 이들 5개국 정상은 지난 1997년 4월 모스크바에서 협정에 서명한 바 있음.
- 현재 국경선으로부터 100km 범위내에 주둔하고 있는 5개 각국의 병력 수도 13만400명 미만이며, 중국의 이 같은 군축, 감군 정보의 공개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한반도 위기 고조로 북중 접경지대의 병력 배치를 늘리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2017. 4. 27.

■ 중국 러시아 군부 공동 대응…“시드 한국 배치 결연히 반대”(연합뉴스)

- 27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6일(현지시간) 제6회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MCIS)에서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정세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진행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냄.

- 중국 측 대표인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인 차이권(蔡軍) 소장은 이날 회견에서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발전은 국제 안보를 필연적으로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차이권 소장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독자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일방적인 우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전면적인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고 말함.

바. 일·러 관계

2017. 4. 25.

■ “러일, 영유권 분쟁섬서 ‘공동경제활동’ 현지조사 추진”(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이 양국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공동경제활동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함께 벌일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전함.
- 신문은 오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정식 합의될 것이라고 보도함.
- 일본 측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업인, 전문가 등 수십 명의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5~6월에 4개 섬과 주변 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은 어업과 관광, 의료,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17. 4. 28.

■ 푸틴, 방러 아베와 회담…“北 도발 억제 위한 양국 공조 합의”(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두 정상이 회담 뒤 밝힘.
- 양국은 또 남쿠릴열도(쿠릴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토 분쟁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기로 한 쿠릴열도에서의 양국 공동경제활동 추진을 위해 먼저 일본 답사 대표단을 열도로 보내기로 함.

-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아베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회담에서 별도로 심각하게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역내 문제에 관계된 모든 당사국이 호전적 수사를 자제하고 차분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4.26	'세계탈북자총회' 첫 개최...“탈북자가 나서 ‘평양의 봄’ 준비를”(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4.28	北 유엔보고관 방북 허용, 인권비판 ‘물타기’ 의도 해석(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4.25	정부 “北주민에 인권침해 사례 전달”...北인권증진계획 수립(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대북지원	4.26	프랑스, 사상 첫 WFP 통한 대북 식량지원(자유아시아방송)
	4.27	스위스 “제재 속에서도 대북지원 계속할 것”(자유아시아방송)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4. 26.

■ ‘세계탈북자총회’ 첫 개최…“탈북자가 나서 ‘평양의 봄’ 준비를”(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유럽, 아시아에 거주하는 탈북자 대표들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수도 브뤼셀에서 ‘세계 탈북민 총회’를 개최함.
- 이날 총회에서 탈북자 대표 30여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와 인권탄압 실태를 폭로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과괴무기 개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함.
- 그동안 주요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모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증언하고 북한 자유화를 요구하는 행사를 한 바 있지만 전 세계 탈북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 사회의 민주주의화를 위한 브뤼셀 선언’을 채택하고 “김정은 정권은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행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4. 28.

■ 北 유엔보고관 방북 허용, 인권비판 ‘물타기’ 의도 해석(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3~8일 북한을 방문해 장애인 인권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힘.
- 데반다스 아길라 보고관은 북한 내 장애인과 당국자, 북한에 주재하는 유엔 관계자, 국제 인도주의 기구, 북한이 장애인 보호 단체로 내세우는 조선장애인보호연맹 등을 만날 예정임.
-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보고관들의 활동 목적을 막론하고 이번이 처음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4. 25.

■ 정부 “北주민에 인권침해 사례 전달”…北인권증진계획 수립(연합뉴스)

- 정부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북한 주민에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또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 간 인권 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함.
-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힘.
-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 인권 증진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목표를 제시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5. 대북지원

2017. 4. 26.

■ 프랑스, 사상 첫 WFP통한 대북 식량지원(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 감소를 위한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기부함.
- 프랑스 정부가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에 자금을 지원한 시기는 지난 4월 중순임.
- 세계식량계획의 북한지원 사업 모금현황 자료에 의하면 이달 중순 프랑스의 기부를 포함해 4월 26일 현재 약 3천671만 달러가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모금됨.

2017. 4. 27.

■ 스위스 “제재 속에서도 대북지원 계속할 것”(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야기된 각종 대북제재와 한반도 긴장환경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힘.
- 스위스 외교부의 캐롤 월티 대변인은 2017년 한 해 동안 대북지원을 위해 800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약 80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왔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을 통해 밝힘.
- ‘스위스 인도주의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스위스 정부가 마련한 대북지원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며, 식수공급과 위생 사업, 영양 및 식량안보사업에 주로 사용됨.